

박정아, 에이즈기금 모금위해 발벗고 나선다

가수 박정아가 에이즈 퇴치와 예방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 박정아는 오는 10일 오후3시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에서 비바글램 립스틱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팬사인회를 갖고 이날 판매수익금 전액을 포함한 5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비바글램 립스틱'은 전 세계 54개국 약 340개 맥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립스틱으로, 판매금액 100%가 전세계 에이즈 감염자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 립스틱은 지난 1994년 비바 글램 1의 런칭 이후 10월 비바 글램 6의 런칭에 이르기까지 지난 12년 동안 조성된 금액 약 700억 원으로 에이즈 환자들의 치료와 교육, 예방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됐다.

(머니투데이 2006. 10. 3)

작년 군 내 에이즈 감염자 47% 증가

지난해 우리 군 내의 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증) 감염자가 2004년에 비해 50% 가까이 늘었으며, 징병검사시 에이즈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 임영대상자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방위 소속 공성진(孔星鎭)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에이즈 감염자 현황'에 따르면 군 에이

즈 감염자는 2003년과 2004년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인 10명과 15명에 그쳤으나 작년에는 22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7% 가량 늘었다. 또 올해 9월 현재까지 12명이 군 에이즈 환자로 추가 판명됐다. 이 기간 에이즈 환자로 확인된 군인은 장교 1명, 부사관 3명, 훈련병 40명으로 나타났으며 국방부는 이들에 대해 전역 및 전역대기 조치를 취한 뒤 역학조사결과를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훈련병의 경우, 징병검사 시 에이즈 검사 항목이 없어 에이즈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가 훈련소 입소 후 입영 검사 시 에이즈 감염이 확인된 경우라고 공의원은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2004년 올해 징병검사부터 입영 대상자들의 에이즈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장비 및 시약을 구입하고 에이즈 검사항목을 포함시키기로 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공의원은 "올해 3월 현재 국내 에이즈 환자가 4천 명을 넘어 서고 있는 상황에서 군 장병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징병검사 시 에이즈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징병검사 시 에이즈 감염을 병무청에 신고, 병역면제 조치를 받은 사람은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13명이었지만, 작

스위스 로슈, "에이즈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돕겠다"

스위스의 세계적인 제약업체 '로슈 홀딩 AG'(로슈)가 22일 3개 아프리카 제약업체들의 에이즈 치료제 제조를 돕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바젤에 본사를 둔 로슈는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프넨 파머케어, 케냐의 코스모스 Ltd. 및 유니버설 코퍼레이션 Ltd. 등 3개 업체에 에이즈를 치료하는 항(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약품 중 하나인 사퀴나비르의 제조기술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슈는 이들 3개 업체에게 사퀴나비르의 생산뿐 아니라 이를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것까지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퀴나비르는 HIV를 치료하는 대표적인 의약품의 하나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는 지난 1월 로슈가 공개했던 기술 이전 구상의 구체적인 첫 조치이며 여기에 가나,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14개국 25개 업체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로슈는 덧붙였다. 전 세계 에이즈 감염자의 69%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아시아 등지의 저개발국가 국민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로슈의 의약품부 CEO인 윌리엄 번즈는 "우리가 제공한 사퀴나비르 제조기술은 아프리카인들의 에이즈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WHO의 에이즈 의약품 담당팀장인 페테르 그라프는 "사퀴나비르는 많은 국제 전문가들이 유용하다고 여기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2006. 9. 23)

년의 경우 24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는 7월 현재 15명이 이런 방식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연합뉴스 2006. 9. 22)

흡연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위험 증가

흡연이 이로움은 없고 해악은 많다는 것을 주지된 사실인 가운데 흡연이 또한 에이즈를 일으킬 수 있는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흡연이 에이즈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 영국 연구팀에 의해 진행된 여섯 개의 연구 중 다섯 연구에서 흡연자가 에이즈에 감염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개의 다른 연구 중 9개의 연구에선 흡연이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후 실제 에이즈로 진행되는 것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장인 퍼버 박사는 연구결과 "흡연이 독립적으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엔 영향을 주나 실제 에이즈증상 발현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흡연이 사망원인 중 예방할 수 있는 인자의 으뜸인 자라고 말하며 흡연이 심장질환, 뇌졸중, 호흡기 질환 및 폐질환과 일부 암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효과적인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 흡연자들로 하여금 담배를 끊도록 하는 대중 처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2006.9. 21)

만델라, 에이즈 환자 인권 보호에 기여 국제엠네스티 최고상 수상

넬슨 만델라(88) 남아프리카공화국 전 대통령이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가 수여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인 '양심대사(Ambassador of Conscience)상'을 받게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19일 전했다. 엠네스티는 "불굴의 의지로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고, 수많은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와 에이즈 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 만델라에게 이 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종차별정책(아파르트헤이트) 반대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만델라는 28년 동안 감옥에서 백인 통치에 대해 투쟁했으며, 1994년 남아공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남아공을 다인종 민주주의 정치체제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는 노령으로 공적 활동을 크게 줄여들었지만 에이즈에 대한 인식 제고 등 각종 사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상을 주관하는 엠네스티의 세계 예술가 지원망인 '엠네스

티를 위한 예술' 창립자 빌 심시는 "만델라가 살아 있는 어떤 사람보다 공적 생활에서 희망적이고 이상적인 것을 상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심시는 "1990년 출감한 이래 그의 모범적 행동과 개인적·정치적 지도력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의 원천이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06. 9. 20)

에이즈 감염 직원 '해고 금지'... 복지부, 법개정안 국회제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로 해고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에이즈 감염 여부를 검사받는 피검자가 익명을 요구할 때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일체의 근로 차별을 금지, 에이즈 감염인의 근로권을 대폭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고용과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었다. 또 감염인이 사망하면 담당 의사와 가구주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했지만 가구의 신고 의무도 삭제됐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방지,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에이즈 감염 여부를 검사받는 피검자가 익명을 요구하면 이를 반드시 수용하고 감염인에 대해 치료를 권고토록 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엔 치료 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일보 2006. 9. 14)

명품 '에이즈코호트', 한국도 동참한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15일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므노즈 박사, 영국의 국제공동에이즈코호트 책임자인 포터박사, 스위스 HIV 코호트 센터장인 르켄바흐 박사 등 국내외 에이즈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에이즈코호트 구축'을 주제로 국제 에이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호트(Cohort) 연구란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과 질병 발생 여부를 장기간 추적·관찰해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연구방법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연구지만 윤리적인 이유로 인체 실험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병의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정책과 연구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예방전략, 더욱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하고자 올해부터 에이즈

감염인 인권증언 '말할 게 있수다' 열려- '감염인 인권 개선해야에이즈 예방'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이 사상 처음으로 무대 위에 올라섰다. 그동안 사회적 천형의 굴레에서 숨죽여 있던 이들의 외침은 그만큼 절절했으며 호소력이 있었다.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은 17일 오후 서울 대학로 한일소극장에서 감염인 인권증언 '말할 게 있수다'를 열고 3명의 에이즈 감염인의 고통을 세상에 호소했다. 김형석(가명)씨는 지난 1994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김씨는 "회사에서 일하는 데 보건소 직원이 찾아와 감염사실을 통보했다"며 "이후 내 인생은 술로 지새웠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후 수차례 직장생활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졌지만 사회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는 "보건소직원, 병원 의사, 가족 등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 하는 것 같았다"며 "이미 한번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자신을 '요한'이라고 밝힌 감염인은 우연히 폭력사건에 연루돼 15일간의 구치소 생활 속에서 감염인이 이종으로 당하는 고통을 폭로했다. 병원에서 근무하다 감염 사실을 통보받은 강모씨는 "가족과 어머니에게 내가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며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증언모임에서는 2명의 감염인이 영상증언을 했으며, 에이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반응을 보여줬다.

〈내일신문 2006. 9. 18〉

코호트를 구축하고 있다. 영국, 스위스 등의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에이즈 코호트를 구축하고 20년 이상 운영하여 이를 기반으로 활발한 에이즈 기초연구, 역학, 치료효과 관련 수 많은 연구논문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정책개발로 이어져 에이즈예방에 활용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 에이즈·종양바이러스팀은 에이즈연구 활성화 회를 목표로 1995년 이후 7차에 걸쳐 국제 에이즈심포지엄을 개최해 왔으며, 이번 8차 심포지엄에서는 전세계 에이즈코호트 중에서 우수한 3개의 코호트가 소개된다. 유럽 22개국 국제공동코호트인 영국의 <HIV 항체양전자코호트>(포터 박사), 미국의 동성애자 중심의 <다가관에이즈코호트>(르노즈 박사), <스위스 HIV 코호트>(리켄바흐 박사) 구축과 운영에 대한 경험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질병관리본부 중심으로 가톨릭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 병원 등 16개 병원이 참여하는 '한국의 에이즈코호트 구축 및 진행상황'에 대한 소개도 예정돼 있다.

〈메디컬투데이 2006. 9. 14〉

FC바르셀로나, 106년 전통 깨고 유니폼에 'UNICEF' 글자 새겨 좋은 일이라면 106년의 전통도 깬다. 스페인 프로축구(프리메라리가) 명문 클럽 FC 바르셀로나가 100년이 넘게 간직해온

'팬과의 소중한 약속'을 저버렸다. 팬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병든 어린이들을 위한 약속이 먼저였기 때문이다.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13일 홈구장인 누캄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6~200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A조 1차전 렘스키 소피아(불가리아)와의 경기에 가슴에 글자를 새긴 유니폼을 입고 나왔다. 자줏빛과 푸른색 세로줄 무늬 유니폼으로 유명한 바르셀로나는 지난 1899년 창단 이후 한번도 유니폼 앞면에 광고문구를 넣은 적이 없다.

레알 마드리드 등 다른 구단들이 글자의 기업들로부터 스폰서 비용을 받고 유니폼 광고를 하지만 바르셀로나만은 고집스럽게 전통을 지켜왔다. 이는 10만명이 넘는 바르셀로나 서포터스가 매년 후원금을 제공하면서 유니폼의 깨끗한 이미지를 지켜달라고 한데서 나온 팬들과의 약속이다.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UNICEF(유엔아동기금)라는 글자와 로고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나왔다. 이 구단이 후진국 아동 에이즈 퇴치에 매년 150만유로(약 18억원)씩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후안 라포르타 바르셀로나 회장은 "106년의 전통을 깨고 특정기관의 이름을 유니폼에 새겼다. 이는 축구를 떠나 아동을 위한 중요한 약속이다"고 말했다.

〈스포츠칸 2006. 9. 13〉

콜린턴의 아름다운 환갑잔차... 에이즈기금 250만 달러 모아
9일 저녁 캐나다 토론토 시내의 로열요크호텔, 미국과 캐나다의 연예계 스타들이 모여들었다. 코미디언 빌리 크리스털과 록가수 본 조비, 전설적인 포크가수 제임스 테일러, 아카데미상을 받은 배우 케빈 스페이시, 데이비드 레터먼쇼의 고정 출연자인 폴 샤퍼, 컨트리 음악 가수 팀 맥그로, 캐나다 여가수 새라 맥라클렌 등의 얼굴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이날의 주인공은 지난달 19일 60회 생일을 맞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었다. 지난달 이곳에서 열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회의에 참석했던 콜린턴 전 대통령이 다시 '자선 환갑잔차'를 연 것이다.

이날 참석한 유명 인사들은 즉석에서 테이블마다 2만5000달러(약 2390만 원)에서 20만 달러(약 1억9000만 원)까지 기부했다. 하루 저녁에 모인 기금은 무려 250만 달러, 전액이 아프리카 에이즈 퇴치 기금으로 사용된다.

〈동아일보 2006. 9. 12〉

20대 재미교포 과학자, AIDS 치료 실마리 발견

20대 재미교포 과학자가 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증)를 치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크만연구소 박사과정 학생인 김희보씨는 아르고노트 1 단백질이 에이즈 바이러스의 체내 침투에 필수인 CCR5란 물질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구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네이처의 자매지인 네이처 구조 및 분자 생물학 온라인판 27일자에 게재됐다. 김씨는 "앞으로 아르고노트 1 단백질의 CCR5 억제 작용을 이용하면 새로운 에이즈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에이즈 퇴치를 1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목사의 아들로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태어난 김씨는 캘리포니아공대(칼텍)에서 생물학을 전공했으며 베크만연구소 대학원에 진학해 RNA 간섭(Interference)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존 로시 박사 밑에서 함께 연구하고 있다.

〈국민일보 2006. 8. 28〉

중국 최초의 에이즈 백신 개발 가능성 유망

중국내 최초 AIDS백신에 대한 예비 테스트에서 에이즈 백신이 에이즈 감염으로 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중국 SFDA(China's Stat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가 21일 발표했다.

18~50세 사이의 건강한 남녀 4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모두 백신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HIV-1의 DNA 분절을 투여 받았다. 연구팀은 백신 접종 2주 후 백신이 면역시스템을 자극 참여자 중 일부에게 HIV-1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연구팀의 리더인 Kong Wei 박사는 참여자들의 몇 명에게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생겼으며 투여한 백신의 농도가 높을수록 면역반응은 더욱 좋았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여덟 그룹으로 나뉘어져 임상 시험 기간인 180일 동안 T5-10번 정도 샘플 검사를 했다. Kong Wei 박사는 비록 초기 결과는 유망한 결과를 보였지만 백신이 성공할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하며 고위험군 800명을 대상으로 한 더욱 큰 규모의 임상실험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에는 65만 명의 사람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고 그들 중 7만5000명이 에이즈 환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2006. 8. 21〉

'에이즈 1위' 인도, 신문·콘돔 함께 배달

인도 남동부 안드라프라데시주의 주민들은 독립기념일이던 15일 아침 배달된 조간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와는 달리 신문 1면에 원가를 담은 봉지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독립기념일 선물이 들어 있을 것 같아 봉지를 열어본 사람들은 안에 들어있던 콘돔 세 개를 보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로이터통신은 안드라프라데시 주 정부가 에이즈 급증을 막기 위해 조간신문에 콘돔을 부착해 전달하는 방법을 활용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주 정부 산하 에이즈통제협회의 아쇼크 쿠마르 국장은 "우리 주에는 인도의 주 가운데 가장 많은 100만 명의 에이즈 환자·감염인이 살고 있다"며 "그동안 술집이나 담배 가게에서 콘돔을 나눠줬지만 별 효과가 없어 신문에 부착해 전달하는 방법을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올 5월 유엔에이즈(UAIDS)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인도는 570만 명의 에이즈 환자·감염인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아프리카공화국(550만 명)을 제치고 '세계 1위 에이즈 국가'란 불명예를 안았다.

〈중앙일보 2006. 8. 18〉